

1997년 3월 31일 월요일

학내 위생방역 현황

이것이 바로 국제화

중문과, 러시아어과를 포함해 7개 외국어 관련학과가 있는 수원캠퍼스에서는 21개의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위성방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KYNET (Kyung-hee Integrated Television NET work system), 즉 교내 유선텔레비전 방송망의 일부분으로 외국어 관련 학과는 물론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학, 자연과학대학내의 전 학과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수신하고 있어 강의에 필요한 보조 및 시청자 자료로 얼마든지 활용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홍보부족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KTNET은 지난 93년부터 운영해오던 교내방송국의 자
 체TV방송망을 확대 개편하여 개방형 구조의 교내 종합
 TV망으로 확장한 것을 일컫는다. 현재 공대, 의대, 사학
 대, 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잇는 총 길이 10km의 유선케
 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각 단과대학
 의 교수연구실 및
 휴게실, 시청각실,
 AV룸등에 설치된
 약 5백40여대의
 텔레비전 모니터
 를 통해 VOU 자
 체제작 방송과 국
 내 공중파 방송,
 국내 위성방송, 케
 이블 채널인 CNN(미
 국) YTN및 QNN(미
 국) OPTI(러시

	채널명	방송종류	채널 성격
4	VOU	한국어	교내 자체제작 프로그램
14	PRIME SPORTS	영어/한국어	세계각국 스포츠 이벤트 중계
	Channel V	영어/중국어	음악전용채널
22	NHK BS-1	일어	세계 각국로 뉴스 교양 프로그램 방
30	Star Channel	일어	영화전용 채널
36	PPC	러시아어	민영 러시아어 종합방송
42	BBC	영어	영국 종합방송
44	TVS	불어	프랑스 종합방송
46	TVE	스페인어	스페인 민영방송
48	Discovery	영어	과학 오락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50	Asia Business News	영어	경제에 관련한 아시아 경제 채널

▲수신중인 주요 위성방송

채널	채널명	방송언어	채널 성격
4	VOU	한국어	교내 자체제작 프로그램
14	PRIME SPORTS	영어·중국어	세계 각국의 스포츠 이벤트 중계
16	Channel V	영어·중국어	음악전문방송
22	NHK BS-1	일본어	세계 각국의 뉴스·교양 프로그램 방송
30	Sar Channel	일어	영화전문 채널
36	PRC	러시아어	영국 러시아 종합방송
42	HBC	영어	영국 종합방송
44	TV5	불어	프랑스 종합방송
46	TVE	스페인어	스페인 종합방송
48	Discovery	영어	미국 과학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50	Asa Business News	영어	취재지역: 북한지역에 한정 정보 채널

▲수신중인 주요 위성방송

국내대학중 최다채널 보유

난시청 해결 국제화에 일조

아) TV5(프랑스) TVE(스페인) 귀주방송(중국) Asia Bussness News(홍콩)을 포함한 21개의 외국 방송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이로써 난시청 지역으로서의 한계를 일시에 극복하고 최신 해외의사 및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져 시사정보의 신속한 획득이 어려운 지방권 여론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교내에 수신중인 KINETNet을 잘 활용한다면 교육의 국제화 달성에도 한몫하리라는 평가이다. 더우기 화상강의를 목적으로 한 강의전문채널도 확보하고 있어 조만간 교내 텔레비전 방송망을 통한 원격수업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KINETNet에 거는 기대는 한층 높다.

이와같이 KINNET 보급에 큰 힘을 쏟은 것은 다른아닌 학생들, 방송국원들이 앉아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등 방송망 확장을 위해 지난 몇년간 캠퍼스의 지하공동구와 대학관을 수도없이 헤매고 다녔다. 그 결과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방송망과 최대 채널을 보유하게 됐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안경진(본교 전자과 박사과정)씨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위성방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우리학교가 처음이라며, 수신되는 방송 채널도 국내 대학 중 가장 많다고 귀띔한다. 그러나 작업 중 학생이 부상을 당하고 교수연구실등을 개방해 주지 않아 어려움 정도 많았다고

일부 단과대학에서 나타나는 수신장애 및 서비스 의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자연대별 및 미설치 대학인 산업대, 체육대학에도 하루빨리 망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서스컴페어와 플러그컴페어까지도 서비스가 개설되어 보다 광범위한 방송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KINET의 숙제이다.

최명숙

〈신문방송국 간사〉

업체선정 마찰로 무궁화위성 쏘고 있다

□...국내 위성방송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위성방송사업은 막대한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한 첨단 사업임에 틀림없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의 투자가 가능한 민간사업자들에게 하루빨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이상 세계를 상대로 한 각국의 문화 침투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학자인 엘빈토폴러는 그의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미래의 정보화 물결을 예측했다. 토폴러의 예측대로 현대사회는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발전과 퇴보로 나누어진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정보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날이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매스미디어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 많을 것 같고 있는가에 따라 한 국가의 정보력은 좌우되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극한 밖으로 열려가는 세계화 시대인 지금 위성방송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로 부각된 이후 그 중요성은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의 위성방송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권진자)

가 들인 예산은 무려 4천6백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위성채널을 공전시킴으로써 매일 9천3백만원의 예산이 우주공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은 이미 위성방송 전파송출을 시작한 세계의 위성방송 사업자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의 NHK, 홍콩의 스타TV 등 8개의 외국 위성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하며 시청 가구수는 약 8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지역 성인의 경우 약 31%가 외국 TV

중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해 6월
부터 사용중인 2개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은 아직도 공전상태이
다. 문국하 1·2호기의 발사에 전부

박경화

〈월간 텔레월드 기자〉

95년 발사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용 복합위성인 무궁화 위성은 극동지역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을 전파권으로 하는 동경 1백16도 상공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무궁화 위성의 24개 채널

인접국가 위성방송 문화 침투현상 야기

방송시장 개방 대비해 대외경쟁력 확보 시급

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등 인근 국가들의 위성방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내에 국내에는 3백여개의 외국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대의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소프트뱅크사와 호주의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공동출자하는 위성방송사인 JSkyB가 내년 4월부터 1백50개의 채널을 송출할 계획이고, 올해만 기부터 1백여개의 방송채널을 제공할 일본의 디렉TV도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접국가 위성방송의 전파월경의 영향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미치고 있다. 음악·패션으로 시작되는 문화 전쟁은 이미 젊은이들

무궁화위성이 내보낸 전파를 수신하는 지상 수신국 안테나

성발사체계획이 수립된 90년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위성방송에 대한 관련 분규제정은 요원한 형편이다. 정부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을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의 참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따라 별 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의 위성방송 사업권 허가의 주관부처는 사업권을 허가하는 공보처와 필요 주파수 사용권을 허가하는 정보통신부이다. 정보통신부는 하루라도 빨리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해 자원낭비를 막고 국내 위성방송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무궁화위성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한국통신에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KBS(4개 채널), MBC, SBS, PBC, EBS, 연합통신,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미원정보, 삼성데이터시스템, 한화전자정보, LG정보통신, 두산수퍼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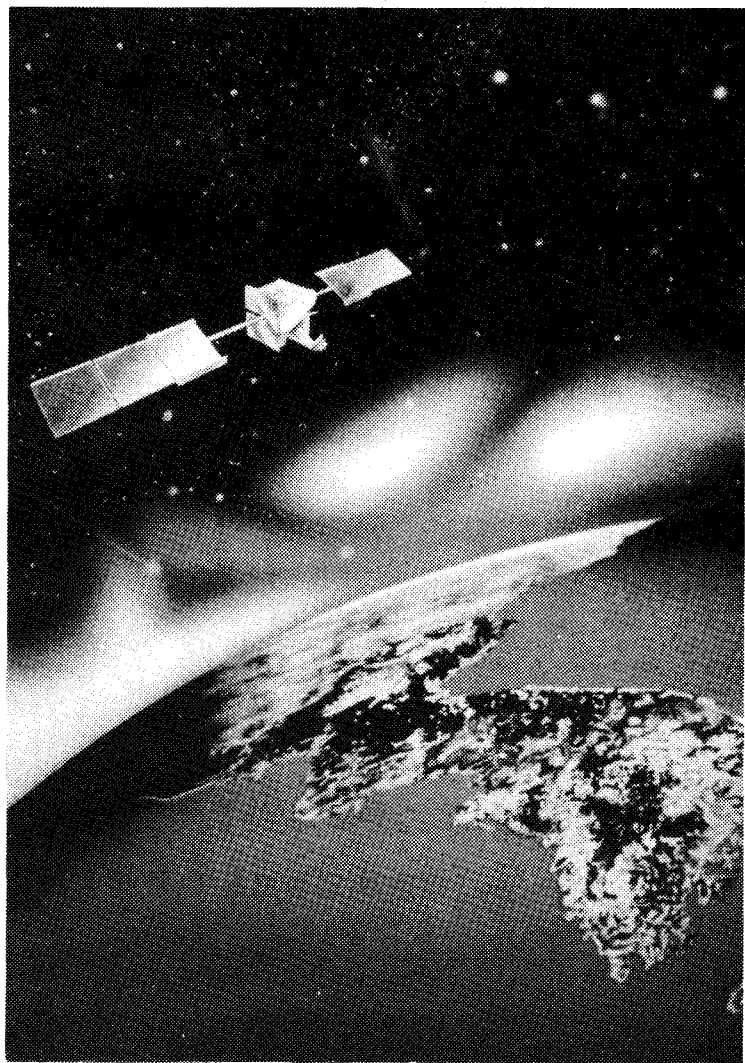
GTV, 금강기획, 대우전자등 19개 채널의 16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언론사들로 이미 보유한 자금력과 방송 언론사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위성방송사업권 획득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언론사의 위성방송 사업참여가 사실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에는 '위성방송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세미나 개최등 공동연대활동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위성방송추진협의회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등 4개 일간지문사와 삼성전대대, 대우 LG 한화 쌍용 선경 롯데 등대량 한화 성원 기술등 12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일민국가의 위성방송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의 투자가 가능한 민간사업자들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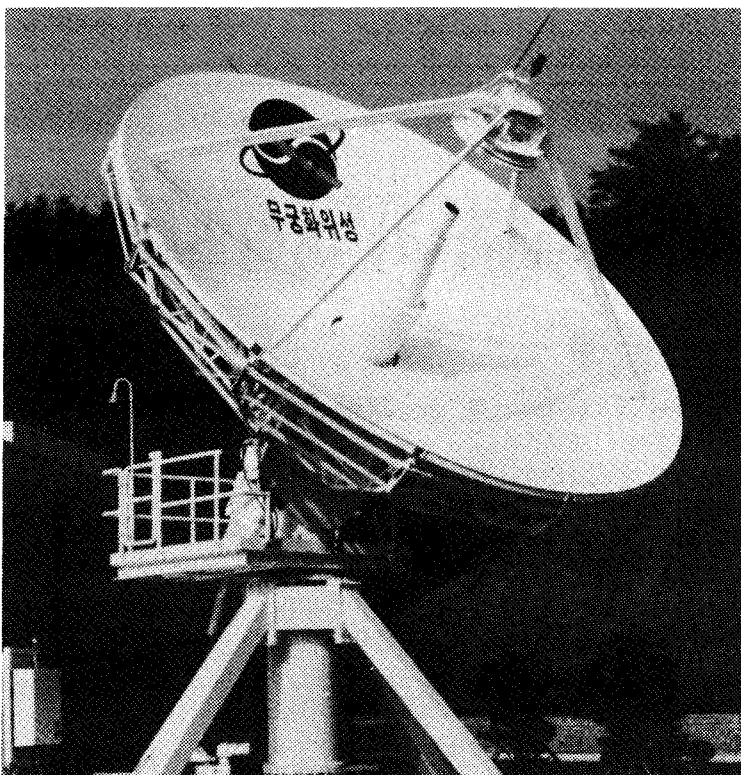
위성방송사업은 막대한 자본과 노
하우가 필요한 최첨단 사업임에 틀
림없다. 이런 측면에 이들 대기업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
다.

뿐만 아니라 WTO협상 타결로 인한 향후 방송시장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위성방송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발사 후 1년 6개월을 공전시킨 미국과 위성의 남은 수명은 2년 남짓. 이제는 안일한 부처간 논쟁을 접고 세계를 상대로 한 각국의 문화 침투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이미 각국의 거대 방송사업자는 아직도 잠에서 깨지 못한 한국의 방송채널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동경 1백16도 상공을 상회하고 있는 무궁화위성



HP Hewlett-Packard

컬러그래픽이 리포트속으로 들어갔다!

HP스캔젯 5p

“**쭉**” 워터치로 끝낸다!

리포트는 물론도 컬러그래픽 시대. 보기 좋은 리포트가 학업도 높은 게 당연. 40만 원대 스캐너 HP스캔젯 5p만 있으면, 그래픽 자료의 완성이 자유. 색상/화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써 함께 1위를 자랑하는 HP스캔젯으로 표현해 보세요. 여왕 그림이나 등식의 스캐닝이 따로 힘든 일도 아닌, 부르면 해결됩니다.

버튼 하나로 리포트 논문에도 컬러그래픽을
 컬러사진, 텍스트, 문서들 스캐너에 올려놓고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2만 원 이하로 스캐닝 OK.

국내유일의 완벽한 한글 솔루션!
 소프트웨어 설계 사용이 쉬워 한글 SAW 및 한글 메뉴와 완벽 지원.

렌즈는 커지고 사이즈는 콤팩트!
 기존 스캐너보다 40%나 얇아진 콤팩트 사이즈. 하지만 대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최상품.

세계 최초 윈도우95의 Plug & Play 완벽 지원!
 15메가의 SCSI 컨트롤러 Plug & Play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설치시 발생하는 주변기기의 충돌을 완전 해결.

HP 스캔젯 10대를 드립니다 (응모권 반드시 첨부)
 1. 응모권 부여: 1997년 10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HP스캔젯 5p를 구매하신 분은 응모권을 받습니다.
 2. 응모권 사용: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5월 31일까지 HP스캔젯 5p를 구매하신 분은 응모권을 받습니다.
 3. 응모권 유효기간: 1998년 5월 31일까지.

HP스캔젯 5p

한국휴렛팩커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5
 5층 501호 (501호)
 (02) 3463-1111